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사악의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1월 11일까지 1억 5491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가원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유럽에서 대륙관광객이 공산당은 애국하지 않았고, 매국까지 했다고 폭로!

[밍후이왕] 2013년 성탄절 기간 유럽관광명소에서 중국대륙관광객들의 ‘3퇴(퇴당, 퇴단, 퇴대)’열조가 대단했다. 일반 관광객들은 ‘공산당’ 세 글자만 들어도 열을 올리면서 공산당을 욕했고, 한 사람이 욕을 하면 듣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가세했다.

관광객, 공산당은 애국하지 않았고, 매국까지 했다!

한 중년 여성 관광객이 자원봉사자가 건네주는 진상자료를 밀어 버리면서 “왜 공산당을 나쁘다고만 말하세요? 공산당이 나쁘면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구경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당신의 여행비용을 공산당이 계산해 주었나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지불했나요? 무엇 때문에 공산당에 감사해요? 탐관들은 해외 구경 다니는 것마저 납세자의 돈을 쓰는데 거기에는 납세자인 당신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맞은 켄 명품점에서 명품시계를 사는 한 차량 한 차량의 고관들은 공짜로 여행하면서 5성급 호텔에 숙박할 뿐만 아니라 공금으로 몇 십만 위안이 되는 시계를 몇 개씩 삽니다. 당신은 여행하면서 생수 한 병 사는 돈도 아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여권은요?”라



홍콩에서 1억5천만 중국민중의 중공 당, 단, 대에서의 탈퇴를 성원

고 말하자 곁에 있던 여행객이 “우리들의 여권은 관광안내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권사본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중공의 고관들은 여러 개의 외국여권을 갖고, 가고 싶은 곳은 다 갑니다. 당신은 정말 중공관원들과 대우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공은 당신의 돈지갑을 열게 하기위해 풀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라고 말하자 주위의 많은 여행객들이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자원봉사자가 “이 탐관들이 입으로는 매일 미국을 욕하지만 그들은 탐오한 돈을 갖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미국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라고 말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감을 표시했고, 한 여행객은 “당신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진실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누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여행객들은 즉시 “공산당입니다.”라고 대답했고, 한 여행객은 또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중공이 중국입니까?”라고 묻자 관광객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자원봉사자가 이어 “우리는 중국을 사랑하지 중공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관광객들은 감격되어 “옳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상자료를 밀어버린 그 여성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리를 피했고 다른 관광객들

은 모두 ‘3퇴’를 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보아하니 세상이 변할 것 같네요.....”

자원봉사자가 여행객들에게 ‘610’두목 리동성(李東生)이 내쳐진 것을 아는지 물으니 한 관광객이 리동성이 누구인지 몰았다. 자원봉사자는 리동성은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는 선봉자였고, 장쩌민은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610사무실’을 설립했으며, 2001년 장쩌민과 휘관 일당은 ‘천안문 분신자살’이란 조작극을 만들었는데 리동성은 매체의 계획자였고, 저우용강이 직접 리동성을 뽑았다. 그런데 지금은 저우용강이 체포되고, 리동성이 조사 받고 있다는 소식이 돌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한 여행객은 “그럼 그 뒤에 있는 장쩌민이 위험하군요.”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조금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파룬궁을 박해한 홍수들은 악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8대’ 이후 3달 동안에 각급 정법위원회 관원들이 400명이 넘게 ‘쌍규(기율검사 부서가 입건 수사대상으로 확정된 간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 처분을 당하고, 체포되었으며, 12명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하층에서 고위층으로 응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에게 대난이 닥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한 관광객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보아하니 이 세상이 곧 변하겠네요.”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가 “그래요. 공산당은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망한 다음에 당신이 탈퇴하려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3퇴’를 권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난을 무사히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가명을 지어 드릴테니 빨리 탈퇴하세요.”라고 말하자 관광객들은 줄을 지어 차례로 ‘3퇴’를 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기쁨에 벅찬 인사말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610’ 두목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색이 변하다

[밍후이왕] 2013년 12월 28일, 후난지역의 팔순 되는 대법제자 양아이쥘(楊煥駒)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고향사람들에게 진상자료를 배포하고 ‘3퇴’를 권하다가 악인이 경찰에 고발해 파출소로 납치되었다.

남녀 경찰들 7, 8명이 할머니가 들고 있던 자료를 빼앗아 가지고 등록하는 한편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배포했으니 현에 보내 감금하겠다고 고함치면서 즉시 현 ‘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에 전화했다. 양아이쥘 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서슴치 않고 경찰을 향해 “당신들은 지금도 사람을 붙잡나요? 당신들의 중앙 ‘610’ 두목 리동성이 체포되고, 저우용강도 체포되었는데 계속 죄를 범하고 있네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들은 진상자료를 한참 보더니 흥분이 싹 사라지고 기색이 바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 밥을 다 먹고 나자 현 ‘610’두목이 7, 8명의 악인

들을 거느리고 와서 위협조로 “당신의 가족에게 알릴까요?”라고 말했다. 양아이쥘 할머니는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겠습니다. 당신들은 진상자료나 보세요. 당신들의 중앙 ‘610’ 두목 리동성이 체포되고, 저우용강도 체포되었으니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진상을 알릴 뿐입니다.”라고 의연하게 말했다. 리동성이 체포되었다는 진상자료를 본 이들은 곧 태도가 변했다. 현 ‘610’두목은 “나의 전화기도 걸려 오는 전화로 폭발할 지경이에요. 나도 더 이상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싶지 않소.”라고 말했다. 양아이쥘 할머니는 “그렇죠. 더는 사람을 붙잡아 악한 짓을 하면 안 되죠.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빨리 ‘3퇴’하여 스스로를 구하세요. 그럼 나는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610’두목이 “당신들은 어느 쪽으로 가세요? 내가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양아이쥘 할머니는 “아니요, 우리 스스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곧 정정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신 수련생, 나의 생명이 끝나려고 할 때 파룬다파가 나를 구해주었다

[밍후이왕] 지금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고 일 년 전에 신장암이 폐와 팔다리, 뼈에까지 전이되어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집에서 생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파룬다파는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 파룬다파가 나를 구해 주었다.

나는 산둥성 자오위안(招遠)시의 퇴직노동자이다. 2012년 7월에 아내가 나를 데리고 지난(濟南) 천불산병원(千佛山醫院)으로 갔다. 검사결과 신장암이 폐에 전이되어 폐에 종양덩어리가 가득했고, 암세포가 팔에까지 퍼져있었다. 당시 의사는 나의 아내에게 치료될 희망이 없으며, 화학약품 치료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내는 믿기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를 할 것을 의사에게 요구해 다시 검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들은 나를 데리고 나이 많은 종의를 찾아보



2014년 1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쇼핑몰 책임자는 또 지역 파룬궁수련생을 요청해 파룬궁을 소개하게 했다. 위 사진은 현장에서 손님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있는 장면이다. 파룬궁은 이미 전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았지만 그도 이미 너무 늦어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절망 속에서 나는 대법수련을 시작했다. 나는 나의 일체를 사부님께 맡기고, 전심전의로 파룬다파를 수련했다. 2013년 10월 초 아흐렛날 저녁, 진짜 기적이 나의 몸에서 나타났다. 밤중 2시쯤에 나는 소변을 보고 침대에 누웠다. 비몽사몽간에 나는 한 사람이 나의 허리에서 무엇

을 끄집어낸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전신이 매우 편안했고, 병이 없이 온 몸이 가벼운 미묘함을 느꼈다. 4시쯤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로 갔다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침대로 돌아 왔다. 아침에 일어나자 나는 밤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사부님께서 나의 신체를 청리해주셨다고 알려 주었다. 아내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지팡이가 보이지

않자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나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때부터 나는 지팡이를 쓰지 않았으며, 다리와 팔의 부종이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졌다. 나의 병은 완전히 좋아졌고, 나는 다시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웃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나는 대법 사부님이 나의 목숨을 건져주셨으며, 대법은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불법(佛法)이며, 중공이 모욕상으로 대법을 박해하고 있으니 더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대법과 대법제자를 소중히 대해 복을 받을 것을 알려주었다. 이웃들은 모두 나의 말을 믿었으며 사람들은 잇따라 대법수련을 시작하고 견정한 대법수련자로 되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위대하고 자비하신 사부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글/산둥 대법제자)

뉴욕에서 증오를 선동한 장쩌민 악당들은 자업자득이다

[밍후이왕] 보시라이, 저우융강, 리둥성이 잇따라 실각하자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의 원흉은 최근 '상인' 천광바오(陳光標)를 사주해 미국 '뉴욕 타임즈'를 매입한다는 속임수로 시선을 끌며 2014년 1월 7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위 '천안문 분신자살 피해자' 하오후이쥔(郝惠君), 천궈(陳果) 모녀를 미국에서 치료받도록 후원하겠다고 하면서 13년 전 파룬궁을 포함한 장쩌민 강패집단의 자작극을 들고 나와 계속 민중을 속이고, 청산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악당들의 끔찍한 죄를 스스로 폭로했으며, 세인들로 하여금 그 배후의 진상에 시선을 집중하게 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개인의 사욕으로 '쥔, 쑤, 런(真, 善, 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소멸적인 박해를 가했다. 그러나 이 한차례 박해는 시작부터 인심을 얻지 못하고 반감과 소극적인 저항을 받았으며, 2001년에 와서는 더는 박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장쩌민의 지시에 따라 청칭훙이 계획을 내고, 정법위원회 서기 뤼간이 중앙텔레비전방송국 부대장 리둥성과 함께 계획하고, 2001년 선달그믐날 '천안문 분신자살'이란 위화(偽火)

에 불을 달았다. 리둥성은 중앙텔레비전방송국을 조종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파룬궁을 모함하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가짜는 가짜일 뿐 거듭되는 검증을 견뎌 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곧 '분신자살'의 많은 허점과 누락을 발견했다.('분신자살인가 사기극인가' 단편참조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3/23/254488.html>)

파룬궁은 불가수련 대법이며, 리훙쑤 선생은 '전법륜' 제7강의에서 "연공인(煉功人)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요구도 비교적 엄격하며,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佛家)·도가(道家)·기문공법(奇門功法)을 막론하고 또 어느 한 문(門), 어느 한 파(派)든지 오직 정법수련이라면, 모두 그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보며 모두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바, 이 점은 확실하다."라고 하셨으며, '시드니법회 설법'에서도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분신자살'은 분명히 파룬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위이다.

2001년 8월 14일, '국제교육발전조직(IED)'은 유엔 국제회의에서 "중공당국은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을 증거로 파룬궁을 모함하려고 시도했으나 우리는 녹화분석

을 통해 전반사건은 중공당국이 직접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제사회가 "시급히 중공당국의 국가공포주의 행위를 제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이미 유엔에 등록 접수되었다.

피로 빛을 진 장쩌민 강패집단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오늘, 하늘의 섭리를 어긴 그들 최후의 발악은 필연코 더 빨리 멸망을 앞당길 것이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그것의 반인류 반인성의 사악한 본성을 더욱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위 '초점방담' 사진에서 볼 수 있는바 류춘링은 불에 타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때려 죽었다.